

지역 대학 장애학생 배려 '낙제점'

전문도우미 배치·장애인 이해 프로그램 소홀 학교측 "인력 등 인프라 부족...지원체계 한계"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학알리미가 제공하는 '2018년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 10곳의 장애인 재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지난 2016년 160여명에 비해 40여명 증가했다.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장애인학생 비율은 남부대가 1.0%로 가장 높았고, 순

천대 0.28%, 전남대 0.28%, 목포대 0.23%, 동신대 0.17%, 호남대 0.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마다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 전문도우미 배치나 장애인해 프로그램 실시는 각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장애학생 도우미는 크게 일반 도우미와 전문 도우미로 나뉜다. 일반 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생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장애학생들에게 교내이동, 보고서

작성, 강의대필, 시험대필, -일상생활 도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

전남대는 장애재학생 수가 47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도우미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조선대와 호남대는 일반도우미와 전문 도우미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은 일반도우미는 배치했으나, 전문도우미가 없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시민, 대학원생들이 활동하기도 하며, 이들에게는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불하는데, 전문도우미는 수화통역과 속기·점역(점자로 교열) 등 심도있는 분야를 다룬다.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각각

학별로 제각각이다.

장애이해 프로그램에는 교수·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이나 대학 내 캠페인 등을 말한다.

대학별로는 호남대가 12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주대 11.5시간,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11시간, 동신대 5시간, 순천대 4시간, 목포대 1시간 등이었다.

대학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에는 교내 인력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체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대병원, 신장이식 수술 600회 돌파 호남·충청권 '최초' ... "장기기증 활성화되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호남·충청지역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 600회를 돌파했다.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30일 최수진나 센터장(이식혈관외과 교수) 집도로 알포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A씨에게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600번째 신장이식 수술 이후 4차례 더 이식수술을 진행해 1987년 첫 생체이식 이후 총 604회(생체이식 331·뇌사자 이식 273)의 수술을 했다.

이번 600회 주인공인 A씨는 알포트증후군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12세 때부터 생명유지를 위해 복막투석을 받으며 힘들게 투병해왔다.

알포트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신장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 가는 희귀 질환으로, 완치를 위해서는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이식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투석에 의존해야 하고, 투석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최수진나 센터장은 "아직도 적절한 공여장기가 없어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다 이식 대기상태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앞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이식기회가 제공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뇌사자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신장이식수술 뿐만 아니라 간이식 수술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수한 이식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나라 기자

돈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법원 "공정성 훼손"...집유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차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 횡수와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지난 1월 20-22일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명에게 현금 4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안전체험관 개관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안전 인프라 100년 프로젝트 관련 승강기 안전체험관 개관식에 어린이와 시민들이 승강기 간헐사고 구조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학교들 예산 집행 형식적 운영

시민모임 "초중고 25.8% 규정 어겨"

광주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학

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포츠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 학생 2,400명 '오월길' 탐방 옛 전남도청 등 들며 5·18 정신 배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초·중·고생 2,400여명이 참여하는 '오월길 역사기행'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전 전남중을 시작으로, 5월 15일 백운초, 광주여고, 일곡초까지 12일간의 일정이다.

오월길 역사기행을 통해 학생들은 인솔교사·강사단과 함께 5·18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게 된다.

주요 탐방지는 옛 전남도청, 민주인권평화기념관, 국립 5·18민주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순례하면서 5·18

배경과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 등 오월정신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움직이는 역사, 80년 오월에서 온 전화 한 통, 5·18 진실을 담은 기사 등 각 장소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5·18의 숭고한 정신을 보다 내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신화 광주전교조 수석부지부장은 "광주지역 학생들 뿐만아니라 5·18 교육 전국화 과제에 맞춰 오월길 역사기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학생을 모집하고 다른 지역 교사들까지 초청하는 사업을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돈은 내고 자야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문이 열린 모텔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50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민 모씨(50)는 전날 밤 9시 10분께 서구 농성동 양 모씨(72)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문이 잠기지 않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민씨는 술에 취해 전남 모텔에서 잠을 청했는데 이날은 모텔에서 숙박을 거절하자 무턱대고 전남 잤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면서 "모텔에서 숙박을 거부하면 다른 모텔을 가면 될 것을 굳이 숙박비도 내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충찬 기자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